

전북교육정책

오늘
2



해외논문 및
기사1

뉴질랜드 국가 학업성취 인증제(NCEA)와 관련 이슈를 통한 고교학점제 시사점 모색

| 장미림(학습연구년 교사)

국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이 2년 앞으로 다가왔음. 그동안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학년을 기초로 하는 '단위제'로 운영됐기 때문에, 개인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긴 어려웠음. 이에 교육부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시작, 2025년 전국 실시를 앞두고 있음.

하지만 고교학점제 전환은 단순히 졸업 요건의 변화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운영체제, 대학입시제도, 수업과 평가 패러다임의 전환 등과 맞물려 있어서 고교 현장 도입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됨.

여기서는 뉴질랜드 국가학업성취인증제(NCEA) 운영과 대학 진학 및 취업에의 연계성을 살펴보고, 최근 관련 이슈들을 통해 국내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시사점을 찾고자 함.



I

왜 뉴질랜드인가?

전라북도의 고교학점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뉴질랜드 고교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탐색함. 해당 국가를 선택한 이유는 학점제 관련하여 국가 수준의 관리가 20년 이상 지속되었고, 이 제도가 상당수의 대학교와 기업에의 진출에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수능과 같은 대입 시험이 존재하는 점 때문이었음.

II

뉴질랜드 학업성취 인증 시스템

NCEA(National Certificates of Educational Achievement) 개념

뉴질랜드 교육부 산하 기관 중 고등학교 졸업 자격시험을 관리하는 뉴질랜드 자격청 (NZQA,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이 Year 11~13(한국 고등 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리하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 인증제’임.



뉴질랜드			대한민국		
학교	학년	만 나이	학교(원)	학년	만 나이
Primary	Year 1	5세	유치원		5세
	Year 2	6세	초등학교	초 1학년	6세
	Year 3	7세		초 2학년	7세
	Year 4	8세		초 3학년	8세
	Year 5	9세		초 4학년	9세
	Year 6	10세		초 5학년	10세
Intermediate	Year 7	11세	중학교	초 6학년	11세
	Year 8	12세		중 1학년	12세
High School	Year 9	13세		중 2학년	13세
	Year 10	14세	고등학교	중 3학년	14세
	Year 11	15세		고 1학년	15세
	Year 12	16세		고 2학년	16세
	Year 13	17세		고 3학년	17세

[표 1. 뉴질랜드와 우리나라 학제 비교]

📌 NCEA 평가 방법

- ❑ 4단계 척도: 미도달(not achieved), 도달(achieved), 우수(merit), 탁월(excellence)
- ❑ Year 11에 Level 1을 시작하여 Year 13에 Level 3까지 진행하는 게 보통임.
- ❑ Level 1은 교육부에서 공인하는 ‘뉴질랜드 자격 프레임워크’ NZQF* (New Zealand Qualifications Framework)에서 가장 낮은 단계를 의미함.
- ❑ 각 레벨에서 정해진 학점(Credit)을 취득하면 다음 레벨로 넘어갈 수 있음.
- ❑ 학교에서 해당 학생의 결과를 NZQA에 송출하면 자동으로 NCEA의 후보자가 됨.
- ❑ 각 레벨에서 80학점 중 최소 50학점 이상을 ‘우수’로 받아야 좋은 성적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함.
- ❑ 상위권 학생들은 다양한 과목의 장학금 시험 응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시험 결과가 NCEA 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심화 수업을 듣고자 하는 학생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함.

* NZQF란, 뉴질랜드에서 고등 교육(대학교 이상) 진학이나 취업에 참고되는 자격 체계임.

📌 NCEA의 쓰임

- ❑ 장학금 혜택
- ❑ 기업 임용자 판단에 사용
- ❑ 뉴질랜드나 해외의 종합대학교(University)와 사범대학 진학에 사용
- ❑ 우리나라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폴리테크닉(Polytechnics, 과학기술전문학교) 진학에 사용

☑ 뉴질랜드 NCEA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https://www.nzqa.govt.nz/ncea/>



III

NCEA 관련 이슈

1. NCEA 평가가 마오리, 태평양 학생에게 불공평하게 설계되었다는 내용의 보고서 발표

* Evaluation Associates란, 1999년 뉴질랜드 북섬 오클랜드에 설립한 교육 평가 기관임. 아오테아로아(Aotearoa, 뉴질랜드 마오리어)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제고하여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Evaluation Associates*는 2022년 9월 NCEA 결과 리포트(2022)에서, “디지털 기반의 NCEA 문해력 및 산술 평가가 마오리족과 태평양 청소년들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함. 시험 난이도보다는 평가의 디자인과 디지털 특성이 해당 학생들의 합격률을 낮추는 데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임(이하 내용은 모두 이 보고서에 근거함).
- NCEA 평가 결과에서 마오리족과 태평양계 학생, 빈민가 출신 10대들이 보이는 다른 그룹과의 성취 격차가 다른 평가에서 나타나는 값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 태평양 학생들은 읽기와 쓰기에서 34%, 셈하기에서 35%로 가장 낮은 합격률 보임.
- 마오리 학생들은 쓰기 34%, 읽기 45%의 합격률을 보임.
- 교사들이 평소 컴퓨터를 잘 활용하지 않는 학생들의 CBT 시험 시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음.

[이슈 내용]

- 주의력 결핍 장애(attention-deficit disorders)
- 기기 접근에의 어려움(difficulties regarding access to devices)
-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의 다양성(variability in students' digital skills)
- 학생 신경 다양성의 문제(the additional challenges for students with neurodiversity)
- 학습 욕구, 문제 지문 관심도, 평가 방법(learning needs, concerns about the question contexts, the method of assessment u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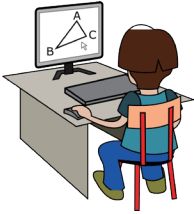
- 그 결과, 해당 연구 기관은 아래 내용을 교육 당국에 제안함.

- ☞ 학생들의 종이 시험 선택권 보장을 촉구함.
- ☞ NCEA의 문항 내용이 이민자, 영어 학습자, 태평양 국가 학생들에게 문화적으로 충분히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함.

- ☑ <New NCEA tests poorly designed for Māori, Pacific students report> 관련 자료를 읽고 싶다면 (NZHerald, 2023. 4. 1.)
☞ <https://www.rnz.co.nz/news/national/487049/new-ncea-tests-poorly-designed-for-maori-pacific-students-report>



2. NCEA 문해력 및 산술 평가 방향 전환에 대한 논의 대두



- ☐ Jan Tinetti(뉴질랜드 교육부장관)는 최근 뉴질랜드 위켄드 헤럴드(Weekend Herald)와의 인터뷰에서 NCEA 평가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함. 이는 2022 NCEA 문해력 및 산술 2차 평가(literacy and numeracy tests, 9월)에서 응시 학생의 54%가 '작문(Writing component)' 영역을 통과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반응이었음.
- ☐ Year 9-13 사이의 학생은 읽기와 쓰기, 셈하기 평가를 컴퓨터로 봄(CBT 적용, 2011).
- ☐ 이 세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과락하면 NCEA 과정을 시작할 수 없음(2024부터 예정).
- ☐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응시 횟수 제한 없음.
- ☐ NCEA 9월 평가 보고서에서 컴퓨터 접근성, 시험 수준, 마오리섬과 태평양섬 아공가의 준비 상태, 교사 전문성 신장에 대한 필요성 등 해결 과제 63개 항목에 권고사항을 제시함.
- ☐ Chris Abercrombie(PPTA, Post Primary Teachers' Association 공립교사조직 회장 직무대행)는 랑가타히(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청소년)가 3R 기준에 미도달하여 NCEA를 받지 못하는 현상이 삶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주장함.



Jan Tinetti(뉴질랜드 교육부장관)

<https://www.nzherald.co.nz/nz/education-minister-jan-tinetti-considering-transition-period-for-new-ncea-literacy-and-numeracy-tests-after-poor-trial-results/MK2ZF56JTJGLPL5BEA4O4OEMVQ/>



Chris Abercrombie(PPTA 회장 직무대행)

<https://www.stuff.co.nz/national/108725685/southland-secondary-teachers-deserve-a-home-life>

- ☑ <Education Minister Jan Tinetti considering transition period for new NCEA literacy and numeracy tests> 관련 자료를 읽고 싶다면 (RNZ, 2023. 3. 31.)

<https://www.nzherald.co.nz/nz/education-minister-jan-tinetti-considering-transition-period-for-new-ncea-literacy-and-numeracy-tests-after-poor-trial-results/MK2ZF56JTJGLPL5BEA4O4OEMVQ/>



IV

NCEA 제도와 운영에서 찾은 시사점

**첫째, 학점제는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이어야 함.**

NCEA의 레벨은 고등 교육기관, 즉 전문대학인 폴리테크닉(level 20이상)이나 종합대학인 유니버시티(level 30이상)의 진학 시 사용됨은 물론 일반 기업의 채용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중학교 3학년 2학기나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의 이음 교육과정을 통해 진로교육과 진로상담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진로를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함.

둘째, 교육 격차 축소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Year 11에 NCEA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읽기, 쓰기, 셈하기 세 영역의 절대평가를 모두 통과해야만 함. 하지만 모국어로서의 영어 사용 여부, 디지털 기기 접근 및 활용 능력의 다양성, 부모의 경제적 능력 차이로 인해 특정 그룹의 학생 미도달률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됨. NCEA 과정에 등록되지 못하는 상황은 진로 선택의 한계로 이어질 수 있음. 전라북도에도 다문화학생 비율 증가, 시내와 농어촌 학생 수의 양극화 등의 이슈가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인적·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읍·면 지역 학생들의 소수 학생 선택 과목을 위한 공동교육과정 지원 강화가 필요함.

셋째, 미이수 학생을 위한 핀셋 지원이 필요함.

뉴질랜드에서 평가 결과가 미도달(NA, Not Achieved)인 경우 해당 학점을 얻지 못함. 학교에서는 이러한 학생을 위해서 개인 지도(tutoring), 보충 학습(additional classes), 그룹 학습(study groups)등을 지원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과목별 최소성취기준에 관한 연구, 출석률(수업 횟수 2/3 이상 출석)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을 위한 보충 과정 방법에 대한 현장과의 조율이 진행 중에 있음. 여기에 학생의 코스를 모니터하여 학점 이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학생의 학부모와 상담 진행, 코스 패스를 위한 학교 밖 과정 개발 등의 전담팀을 학교에 배치하여 교육과정 단계별로 미이수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캐나다 오타와-칼튼 교육청의 대책도 눈여겨볼 만함(김진철, 2020)*.

* 김진철(2020).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칼튼 교육청 Ridgemont High school 교육과정과 고교 학점제의 시사점 모색.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교육 탐색과 시사점, 171-186.



